

왕으로 오신 주

마가복음 14:32-42

2021 년 3 월 28 일

한 소년이 아파서 집에 있어야 만 했습니다. 마침 그 날이, 아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배시간에 행진을 하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이 소년은 엄마랑 집에 있어야 만 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온 아빠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종려 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행진을 하는 거야? 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거야?” 소년의 아빠가 답하기를,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느라고 종려 가지를 흔들어되었지.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도 종려 가지를 받고 흔들었지.” 이 소년이 답하기를, “제기랄. 내가 교회 아파서 못 간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주일이었네.”

오늘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구교 신교, 모든 교단들이, 종려 주일을 지킵니다.

첫 종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 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히브리 민족의 장자가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만나는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 장 9 절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행동으로, 만유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기대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야로 믿고 모두들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치며 좋아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는 또 히브리어 표현인 “호쉬아 나”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호쉬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는 “제발”, 또는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의 문자적인 뜻은 “오!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는데, 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하였습니까?

군중들의 실망은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사람들이 살았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때는 로마가 유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때뿐만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앗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니 그 차별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니,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그 기대는, 허물어 졌습니다. 그래서, 왕중 왕,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욕심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침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고, 무슨 하나님의 공의이고 무슨 사랑이고, 무슨 평화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로마 군들을 이 땅에서 내 몰아내고, 독립하는 거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흔들면서 군중들이 예수님 입성을 환영하니까,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서, 힘 좀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이 빛을 낼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 앞에 전개될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당하여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도망쳤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세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을 겁니까?

종려주일은 또한 고난 주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왕 중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제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몰이해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 주일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진정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며,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 돌아서서,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처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하는 군중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인가?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 왕 대접할 것인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아무 말 안하고, 나귀를 가져 온 두 제자가 예수님을 왕 대접 주님으로 인정 하였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이 쓰십니다’ 하여라.” 그들이 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십니다” 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고 왕중의 왕으로써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그가 주님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만, 이 이름이 밝혀져 있는 나귀 주인은 놀라운 응답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키는 명칭으로 구원자라는 단어, Savior 가 23 번 나오는데, 키리오 주님, 왕, 으로 명칭하는 곳이 665 번이 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주인”혹은 주님이라는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큐리오스”라는 말로 고백했던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달랐다.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 앞에 무명의 나귀 주인은 자신의 것을 내놓는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그의 생각을 접고, 그의 계획도 접고, 그의 욕심도 접고, 그것을 선뜻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 가는 인생임을 이 무명의 그리스도 인은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것처럼 움켜쥐고 살다가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는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2:13-21). 내가 주인인 것 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일생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침표를 찍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원하시는대로 쓰셔야지요. 주님이 먼저 쓰셔야지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까? 가능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고 싶은 인간 예수님이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간구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기 바램 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1

요한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이 진정,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 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진심으로, ,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사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만유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 가시는 따라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